

총격 사망 초등생부터 민주화 동지까지 '역사' 앞에 서다

김부겸 총리가 둘러 본 5명의 열사는 누구?



박현숙 박용준 전재수 김동수 나병식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망 박현숙
투사회보 제작 들불 열사 박용준
41년만에 사진 찾은 아이 전재수
윤상원과 도청 최후 항전 김동수
김부겸 총리 민주화동지 나병식

시 송원여상 3학년) 열사는 주남마을 버스 총격의 희생자이다.
박 열사는 항쟁 기간 계엄군 총격에 숨진 시민군들의 시신을 정갈하게 수습해 입관하는 일을 도왔다. 1980년 5월 23일, 옛 전남도청 지하실에서 시신에 묻은 피와 오물을 닦던 중 권아 부축하자 화순으로 관을 구하려 갔다. 화순 방향 버스를 타고 주남마을을 지날 때, 계엄군이 버스에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박 열사는 입급 발의 총알에 맞아 숨졌다.
두번째로 발길을 옮긴 곳은 박용준 열사의 묘역이었다. 박용준 열사는 들불야학 윤상원·박관현·박기순·신영일·김영철·박희선 열사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이끈 '들불 열사' 7인 중 한 명으로 계엄군의 광주 만행을 알린 '투사회보'의 글씨를 직접 쓴 것으로 유명하다. 박 열사는 고아원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구두땀이를 하면서 야간고등학교 졸업하고 광주신협에 취직했다. 이후 1979년 들불야학과 인연을 맺어 교사로 활동했다. 들불야학 강학생 시절 그는 교재나 나무도장, 간판 제작을 도맡을 만큼 글씨를 잘 썼다고 한다. 그는 1980년 5월 27일 YWCA 건물을 지키다 최후진압 작전에 나선 계엄

41주년 5·18민주화운동 정부기념식이 끝난 뒤 김부겸 국무총리가 둘러본 박현숙, 박용준, 전재수, 김동수, 나병식 등 5명의 열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정부의 공식 대표로 기념식에 참석한 김부겸 총리는 기념식이 끝나고 5·18민주화운동 유족회장과 광주지방보훈청장의 안내를 받으며 열사들의 묘소를 참배했다.
애초 3명의 열사를 참배하기로 했다가 추가로 2명의 열사 묘지를 더 둘러본 것이다.
김 총리가 첫번째로 둘러 본 박현숙(18·1980년 당



초등생 아들 유골이라도 찾았으면... 18일 오전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행불자 묘역의 아들(당시 초등학생 1년) 묘지를 찾은 이귀복 씨가 묘비 앞을 떠나지 못하고 서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군 총탄에 쓰러져 영영 일어나지 못했다.
김 총리 등이 세번째로 둘러 본 묘역은 41년 만에 '잃어버린 얼굴'을 찾은 전재수 군의 묘역이다. 전군은 1980년 5월 24일 남구 진월동 마을 앞 동산에서 친구들과 놀다 주둔군과 충돌 병력 간 오인 사격 과정에서 총탄에 맞아 어처구니없는 죽음을 맞았다. 당시 총소리에 놀라 친구들과 도망치던 전군은 며칠 전 생일 선물로 받은 고무다이를 벗겨져 주우려 돌아섰다가 총에 맞아 숨졌다.
이렇게 3인의 열사는 김 총리가 참배하기로 예정

돼 있었으며, 이후 2인의 열사가 추가됐다.
김 총리는 전재수 군 묘역을 방문한 뒤, 인근에 지선스님과 인사를 나누던 중 스님의 안내로 김동수 열사를 찾았다. 김 열사는 윤상원 열사와 함께 5월 27일 계엄군의 전남도청 진압작전시 최후까지 항전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김 열사는 1980년 당시 조선대 3학년으로 대학생 불교연합 지부장을 맡기도 했다.
김 총리의 마지막 참배지는 나병식 열사의 묘지였다. 나 열사는 김 총리가 생전에 같이 민주화운동

을 했던 동지의 인연이 있다며 개인적으로 꼭 들렀으면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나 열사는 1980년 5월 17일께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의 청년학생 주동자로 지목돼 서울 마포구 망원동 대교면에서 마포경찰서로 강제연행돼 다음날 오전에 합수부로 이송돼 구금됐다. 이후 역사서인 '한국민중사 1·2'에 5·18민주화운동 부분을 저술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죄가 적용,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을 받은 적도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7일까지 오월 사적지 순례...참가자 모집

'광주 오월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 행진'은 오는 27일까지 '오월광주, 열흘간의 항쟁 순례길' (항쟁 순례길) 행사를 개최한다.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된 항쟁 순례길은 올해로 3번째로 오월 기억의 공간을 함께 걸으며 5·18민주화운동을 환기하고, 오월을 기억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18일부터 시작된 올해 항쟁 순례길은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 후원으로 진행되며 5·18민주화운동이 있었던 5·18민주광장, 옛 전남

도청 일대, 금남로, 5·18민주묘지, 전남대학교, 옛 대인동버스터미널 앞, 광천시리아파트, 무등경기장 앞, 옛 505보안부대 앞, 옛 국군통합병원 앞 등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를 순례한다.
참가자들은 항쟁 순례길을 걸으며 5·18민주화운동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며 현재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웹사이트(<https://forms.gle/WMYHTHz26RqRosvn8>)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010-3256-2625. /박성현 기자 skypark@

광주·대구 전교조 '교육 달빛동맹'

5·18-2·28 교류행사 등 약속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대구지부가 5·18에 맞춰 '교육 달빛동맹'을 맺는다.
광주지부에 따르면 19일 국립 5·18민주묘지 추모관 앞에서 광주지부와 대구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달빛동맹' 공동 약속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의 내용은 매해 2·28과 5·18에 맞춘 정기 교

류행사, 관련 공동수업을 위한 자료 제공과 실천, 다양한 참교육실천 행사 공동 개최 등이다.
이들은 협약에 앞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다. 이어 인근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참배한 뒤 오월어머니집을 방문한다. 옛 도청과 전일빌딩245도 방문, 그 날의 아픔을 함께 한다.
한편 2013년 3월 빛고를 광주시와 달구벌 대구시는 상생을 위한 '달빛동맹'을 맺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한빛원전 5호기 '부실 정비' 기소

광주지검 '대리 시험' 두산중·한수원 관계자 등 8명

한빛원전 5호기(가압경수로형·100만kW급) 부실 정비 문제와 관련, 잘못 용접하고 허위보고한 관계자들이 기소됐다.
검찰은 또 관리 감독이 부실한 틈을 타 대리 시험을 치렀다는 의혹 (광주일보 2020년 11월 20일 6면)도 확인, 재판에 넘겼다.
1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환경·보건범죄정담부(부장검사 홍석기)는 이날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두산중공업·하정업체·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법인인 두산중공업과 한수원도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7~8월 영광군 한빛원전에서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용접 작업을 하면서 용접이 잘못됐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정업체 용접사 A(46)씨와 B(39)씨는 지난해 7월,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용접 과정에서 부식에 강한 니켈 특수합금 제품인 'alloy 690'으로 용

접해야 하는 부분을 스테인리스로 잘못 용접했음에도 은폐하기 위해 잘못 용접한 부위에 'alloy 690'을 덧씌우고 정상으로 용접 기록서에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원안위의 지시로 이뤄진 오용접 여부 전수 조사에서 잘못 용접한 사실을 숨기고 정상으로 허위 보고한 혐의(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도 받았다.
두산중공업 하정업체 직원 D(35)씨는 또 지난 2019년 12월 두산중공업 용접사 자격인정 시험 과정에서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 용접 조원의 그라인딩 작업 실기시험을 대리해주는가 하면, 가이드 론 용접 작업 실기시험을 대신 치르고 허위 시험 자료를 제출해 자격인정을 받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원자로운영자인 한수원 간부 E(49)씨와 안전관련설비 제작자인 두산중공업 간부 F(39)씨는 오용접을 숨기기 위해 전수 조사 당시 허위 보고를 한 혐의(원자력안전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오~나라가

인증한 전문가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취득한 요양보호사 체계적이고 전문적 시스템으로 어르신들의 돌봄을 지원합니다

**더 좋은 돌봄,
요양보호사의 존중으로
시작됩니다**









- 신체지원
- 정서지원
- 인지활동지원 등
- 가사지원
- 일상지원

어르신들의 일상을 돕는 전문적인 돌봄

※ 요양보호사에게 욕설, 과도한 신체접촉,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문제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장기요양상담 | 1577-1000
치매상담 | 1899-9988